



## 역사를 보는 기본 유형들

안종철

*역사가와 그가 기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 데이빗 베빙턴*

### 1.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견해에는 당시의 분위기와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가깝게는 현대나 동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인식들은 몇 가지 유형들 속에서 개념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은 역사관의 다양한 견해들을 개념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sup>1)</sup>

왜 역사를 보는 눈이 다양한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먼저 둘 사이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된 '역사'를 들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대한 기록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2차대전은 역사가 되었다."와 같은 명제에서 보듯이 과거자체 즉 발생한 일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역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사서술(역사가의 기록내용)과 역사 과정(기록의 대상) 사이의 차이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서술은 역사과정의 '일정한' 반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역사서술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사료의 문제이다. 시간적으로 연구대상과 분리되어 있는 역사가는 공간적으로 연구대상과 분리되어 있는 천문학과 아주 유사하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통해 별에 대한 지식을 수집한다. 역사가도 중간매체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가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사료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료가 부족하고 어떤 의도에 따라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sup>2)</sup> 그리하여 역사가에게는 비판적인 정신구조가 요구된다. 만약 과학이라는 단어가 '질서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를 의미한다면 역사가 과학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sup>3)</sup>

또 하나의 문제는 역사가 자신의 문제이다. 무엇을 기록해야 하느냐를 규정하는 것은 결코 사료만이 아니다. 역사가의 성향과 사상이 그의 역사서술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역사서술은 흔히 어떤 역사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기 위해 사료를 추적한 결과물일 수 있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다.(에드워드 기본의 《로마제국의 흥망사》, 프란시스 쉐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 보면 각 시대는 당대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역사가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는 필연적으로 사실을 다룬다. 즉 과거자체가 불완전하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의 주제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저술은 ‘주어진 과거’와 ‘역사가의 창조성’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러한 결과 역사적 지식은 확실하기(certain)보다는 개연성이 강한(probable) 것이다. 역사가가 다루는 ‘사실’은 일어났던 그대로의 ‘사실’이라기 보다는 ‘역사학적 사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역사서술은 논쟁의 형태로 구성된다. 과거의 어떤 분야가 처음 연구될 때라고 할지라도 역사가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가 소설과는 대조적으로 사실적인 것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논쟁의 기술로서 ‘수사학’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학을 문학의 한 분야로 만든다.<sup>5)</sup> 두 가지의 성격 때문에 구미권 대학에서 역사학과가 사회과학부에 속해 있기도 하고 인문학부에 속해 있기도 한다. 이것은 역사가 차지하는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 2. 역사관의 유형들

### 1) 순환론적 역사관

“진정한 역사의 전개는 타락한 현 시대에서 ‘천명’(天命)을 회복하는 것이다.” 孟子

‘순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경험하거나 했던 것이다. 첫 번째로, 모든 개인의 생애는 성장해서 성숙하고 결국 노쇠하여 죽는 유형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농업을 주로 하던 사회에서는 역사를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순환론적 해석은 과거 농업이 주산업이던 시기에 중국, 인도, 중동, 그리스-로마 세계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물론 사상은 독자적인 발전을 견기도 하기에 반드시 사회 생산체제와 조응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련된 형태로 최근까지 살아남은 것은 물론이다.

순환론적 역사이해는 세 가지 정도의 변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특정왕조나 문명을 순환단위로 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권 특히 중국의 역사는 왕조적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새로운 왕조의 등장과 그들의 권력장악 그리고 궁극적인 몰락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sup>6)</sup> 그 때의 중심개념은, 왕조의 첫 번째 통치자에게 주어졌다가 마지막 통치자가 상실한 ‘천명’(天命)이었다. 각 왕조는 ‘마지막 악한 통치자’나 ‘무능한 통치자’로 끝이 났는데, 권력이 다음 왕조로 넘어가는 것은 그의 도덕적 무책임으로 인한 사회혼란이라고 설명되었다.<sup>7)</sup> 대중적인 윤리교육을 위한 실용서인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과 관리들에 의한 국가의 공문서가 대표적인 역사서들이었다. 이 인식은 역사에 대한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불변하는 도덕질서가 있다는 것과 인간의 행동유형은 반복된다는 것이다.<sup>8)</sup> 둘째, 인도의 우주론적 순환론을 들 수 있다. 한 주기는 대략 네 ‘유가’(Yuga) 즉 네 시대로 되어 있는데 각 시대의 앞에는 여명기가 있고 이후에는 황혼기가 있다. 각 유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수명과 도덕성, 행복이 감소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현재는 파국이 임박한 네 번째 유가이다. 한 주기가 끝나면 우주는 해체되어 혼돈상태가 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그 과정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사상의 결과 사람들은 계속되는

반복유형에 체념해야만 했다. 이는 역사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낳았다.<sup>9)</sup> 셋째, 고대 중동인들의 상고주의적인 관점이 있다. 역사가 황금시대로부터 점차 쇠퇴한다는 관점이다. 체념보다는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선의 세력들에 합세함으로써 심판에 대비할 것이 강조되어 영웅적 행동이 고무되기도 했다.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작가들도 황금시대를 회상하면서 상고주의적인 입장에 기울었다.

순환론은 고대에 상당히 편만했던 사상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가 어떤 목표를 가진 사상체계에 의해서 변형되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때때로 낙관론이 순환론과 결합되기도 했다. 19-20세기의 니체, 슈펜글러, 토인비 등에 의해 특이한 형태의 순환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 2) 기독교 역사관

“오, 지나간 나날에 우리의 도움이셨고 장래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어...” 아이작 와츠, ‘다윗의 시편을 모방한 시’

다양한 순환이론들은 한결같이 순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거의 강조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역사의 종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다는 것, 그 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분은 역사를 자신이 계획한 목적지로 이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표현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역사의 현실에서 ‘적용’이라는 단계에서 다른 것과 결합되기도 하고 오용이 되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다가 때때로 악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는 전장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한 경솔한 낙관론을 경계한다.

기독교 역사관에서 예민한 문제들은 역사의 특별한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상과 고난의 문제 등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 3) 진보사상과 역사관

“진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우리가 악과 부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 허버트 스펜서

진보사상은 오늘날도 강력히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다. 그 구조를 몇 가지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사상은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미래에 대한 신념을 제공하며, 불변하는 도덕적 가치를 수용한다. 진보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인간본성에도 관련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역사의 정점에는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소망과 아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 진보이며 무엇이 진보가 아닌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행복, 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진보사상은 역사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에 따라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신념을 배척하게 되었다.

진보사상과 관련이 있는 학자들은 볼테르, 흄, 몽테스키외, 존 로크, 콩도르세, 생시몽, 콩트 등을 들 수 있다. 역사학과 관련해서는 영국과 해외 역사학자들, 나중에 제 3세계의 일부 학자들은 콩트나 스펜서가 본대로 역사의 발전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믿음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진보사상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판을 받았다.<sup>10)</sup> 특히 물질적인 진보를 인정하더라도 도덕적 진보는 논란거리가 된다. 게다가 진보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현재를 후대에 대한 준비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 반대가 있다.<sup>11)</sup> 오늘날 인기 있는 더 온건한 진보사상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없다.

#### 4) 역사주의 역사관

“모든 사건은 정신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 야콥 부르크하르트

역사주의는 현재 한국 역사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근대 역사학의 뿌리는 일본의 역사학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시대에 일본을 통해 근대적인 교육제도들이 도입되면서 한국에서도 근대역사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학이 바로 독일의 ‘역사주의’적인 철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2)</sup> ‘역사주의’는 서양 사상에 거의 진보사상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특히 그렇다. ‘역사주의’라는 개념은 1880년대 이후 불려졌다.

역사주의의 중심사상은 모든 문화가 역사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과거와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철학과의 학설들은, 진리를 이론화해서 파악하려는 시도로서 뿐만 아니라 그 철학자들이 살고있는 사회에서 비롯된 태도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역사주의는 특수한 가치관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민족을 강조하였다. 민족의 차이가 성향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는 주로 언어의 차이로 설명된다. 역사주의자들은 민족을 어떤 특정한 언어가 사용되는 범위로 간주하였다. 역사주의는 19세기 민족주의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의 배후에 있는 이념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중요한 사상가로 헤르더를 들 수 있다. 국가중심 사상은 역사주의 전통이 위세를 떨치는 동안 독일 역사가들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게 만들었다. 대외관계에 집중된 관심 때문에 랑케의 작품 같은 것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내의 정치적 갈등이 소홀히 다루어졌다.<sup>14)</sup> 역사주의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주의 사상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역사주의자들의 전제에 따르면, 다른 사회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와 다르다. 다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역사가가 자신이 속한 사상체계를 박차고 나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의 사상체계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역사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직관이라는 재능이 있다고 답한다. 이 직관의 과정을 ‘이해’라고 불렀다. 직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낭만주의 예술가를 들 수 있다. 직관을 통한 이해는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주의자들은 역사에 일직선적인 발전은 없다고 주장한다. 초기 진보사상에 자주 등장하는 인간의 완성이라는 역사의 목적은 역사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한 랑케의 명제는 이것과 연관이 된다. 즉 “모든 시대는 신과 직접 연결된다...”. 어느 세대든지 자기 시대의 표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각 시대의 책임은 후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주의자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암바티스타 비코(18세기 초 피렌체 대학의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역사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의 관습, 언어, 문화들을 기뻐하는 최초의 역사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역사주의의 배경 즉 독일의 전통 중에서 두 가지 측면이 특별히 그들의 역사사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내세 지향적 특징을 가진 종교가 독일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박학의 시대를 특징 지운 역사연구법이 규범이 되었다. 초기 역사주의는 기독교의 경건주의와 연관이 깊었다. 프랑스나 스코틀랜드적 방식의 철학적 역사가 과거의 상세한 사실들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역사주의는 프랑스식의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주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프랑스에서는 역사주의 이론이 생시몽시대 이래의 사회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역사주의의 믿음이 19세기말의 경제이론을 변형시켰다. 이태리에서는 헤겔주의와 함께 피코의 사상이, 20세기 이태리의 가장 위대한 지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체의 미학과 역사철학의 배경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국가의 공동체적 인격성에 대한 역사주의의 강조가 히틀러의 국수주의적 생명철학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독일에서는 뿌리깊은 직관적 이해 사상이 철학적 사조를 형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실존주의 철학도 역사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도 사실이다.

역사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박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역사주의는 역사의 변화무쌍한 물결이 인간내부의 어떠한 불변성이나 항구성도 제거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살던 근대 프랑스나 영국에 살던 누구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위의 주장은 비판에 직면한다. 둘째, 과거의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주의 사상 역시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직감을 통한 공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족주의의 과도한 주장을 통해 위험한 교리들이 생겨나기 쉽다. 19세기말의 프러시아 학파 역사가들은 독일의 군국주의에 주요한 공헌을 하였던 것은 그 예이다.<sup>15)</sup> 역사주의자들은 다른 민족 역사가들의 비판을 도외시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일정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역사과정에서 국가 중심성에 관한 모호한 주장은 역사가뿐 아니라 정치가들도 과도한 국가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넷째, 역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토대가 없다는 점이다. 역사주의는 인간의 신념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역사 자체라고 주장한다. 역사주의는 역사적 상대주의로 떨어지고 말았다.

##### 5)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소위 전체 세계사는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창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역사과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할 때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는 전제이다. 비록 헤겔의 사상에서는 인간활동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이지만,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라고 본 점에서는 포이에르바하보다는 헤겔이 인간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요소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인 생산양식이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정한다. 생존수단을 창조하는 노동이야말로 삶을 결정짓는 방식이다. 생산이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는 마르크스의 확신은 그의 사상이 당대 독일의 저변에 흐르는 역사주의적 전제들과 일맥상통함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시대구분의 체계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법칙이란 단지 인간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방식에 관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운명이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역사의 형성자라는 자신의 최초의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이름은 보통 칼 마르크스라는 이름과 결부되어 언급된다. 엥겔스에 따르면

역사와 자연은 필수 불가결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전적으로 유사한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다. 엥겔스는 자신의 관점을 당대의 실증주의 이론가들의 관점에 접근시킴으로써 마르크스를 넘어서 나아갔다. 엥겔스는 단일 원인 결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실증주의적 경향을 가진 독단적 세계관으로 만든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더욱더 독단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의 견해를 숙명론으로 낙인찍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엥겔스의 지적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에 미치는 사상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경제적 요소가 이데올로기의 발전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생산양식의 변화가 법률, 정치, 철학, 종교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들의 최우선적인 동인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신념은 여전히 남아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예술적 성취 등 창조적 행위에 대하여 왜 그런 업적들이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로, 마르크스주의 전제하에서는 민족주의와 같은 많은 사상의 본질들이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셋째로,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남아있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스탈린주의의 독재에 직면하여 효력을 상실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사건을 평가할 도덕적 기준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 6) 문명주의 역사관<sup>16)</sup>

“문명은 발생, 성장, 쇠퇴, 해체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 토인비

1994년의 미국의 유명한 외교학 잡지인 《Foreign Affairs》에 실린 〈문명의 충돌〉이라는 글을 기고한 새뮤얼 헌팅턴의 방대한 책이 얼마전 논문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되었다. 이 글은 발간되자마자 술한 논쟁을 이끌어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이 글이 국지전을 과도히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충돌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서부터 그가 분류한 문명권이 잘못되었다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의 글의 핵심은 21세기는 정치, 경제력의 문제보다는 ‘문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헌팅턴 이전에도 서양사상에서 역사를 문명단위로 살펴온 경험들이 있다. 이러한 역사관은 문명자체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성, 성장, 쇠퇴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17)</sup> 이 역사관은 19세기의 역사학 즉 랑케사학에 대한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는 유럽에서 국민국가 즉 국민, 주권, 영토를 오늘날처럼 이웃국가에 대해 배타적으로 확정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였다. 물론 랑케사학도 세계사를 다루기도 했지만<sup>18)</sup> 그의 세계사는 유럽중심의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였다. 그의 세계사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국민국가였다. 그러기에 그에 있어서 역사연구의 단위는 국민국가였다.

이러한 ‘문명’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최근 발칸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갈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각 사회와 국가의 문화나 문명권을 설정함으로써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서 많은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각 문명의 특성을 어떤 지역의 ‘본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이나 문화의 전파가능성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sup>19)</sup> 각 지역의 특성을 살필 때 오히려 개연성(plausibility) 즉 현상의 근접성으로 살펴야지 변하지 않는 실재(definite core)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sup>20)</sup>

### 3. 역사의 의미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역사사상을 대략 관념론과 실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사상학파의 논쟁은 인간에 대한 기독교 사상의 양 측면의 어느 한쪽을 제거했기 때문에 생겨난다. 실증주의자들에게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며, 관념론자들에게 인간은 영웅적 창조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부터 모든 논쟁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역사서술의 철학이 그 기독교적 뿌리를 재발견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그들의 환경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 환경의 조성자도 될 수 있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역사가는 자신이 서술한 내용에서 명백한 기독교적 표현들을 삼가야 한다. 그의 역사는 그가 기대하는 청중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역사의 한 부분에 독특한 기독교적 언급은 빠졌다고 해도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은 여전히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때때로 역사에 대한 섭리론적 체계가 아무런 유보없이 다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가는 과거의 인간을 도덕적 책임이 있는 행위자로 묘사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기독교 역사가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겸손을 덕목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에 개입하시기에 역사가의 임무는 어렵듯이 그것을 발견해내야 하고 악이 존재하기에 역사에서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양자를 어떻게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역사를 인식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인간이 파악하는 역사는 오류를 범하는 인간을 과거에서 보게 함과 동시에 역사에는 법칙이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역사는 복잡하지만 의미가 있다.

〈읽을거리〉

데이빗 베빙턴(김진홍·조호연 옮김), 1997 《역사관의 유형들》 IVP

로널드 웰즈(한인철 옮김), 1995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 IVP

중국의 역사인식(閔斗基 編), 1985 《중국의 역사인식》 上·下 창작과 비평사

- 1) 위에서 분류한 역사관의 유형들이 상호간에 관련성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한 구분뿐임을 밝혀둔다.
- 2) 대표적으로 '콘스탄티누스 기진장'(Donation of Constine)에는 4세기, 서로마제국의 황제가 교황직의 제국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8세기에 만들어졌음이 14세기 르네상스 초기의 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사실의 왜곡은 전기물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 3) '과학'과 '비과학'에 대한 구분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겠다. 장대익 helper의 [복음과 상황] 여러 글 참조.
- 4) 자신이 어떤 전제들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라도 사실은 연역적인 방법 즉 어떤 전제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다윈주의 사회의 학문과 사상의 전제들과 기독교 사상의 전제의 비교를 다룬 좋은 책으로는 레슬리 뉴비긴, 1998 《다윈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IVP를 들 수 있다.
- 5) 영국산문의 몇몇 걸작품들이 기본이나 트리벨리언 같은 역사가들의 저작이었다고 한다. 한국사 계통에서도, 비록 미국 사람이지만 브루스 커밍스(《한국전쟁의 기원》 I, II 저자) 같은 학자는 논쟁과 아름다운 문장력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 6) 다양한 연대기 즉 《明實錄》 《清實錄》 《朝鮮王朝實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7)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은 한국사나 중국사에서 왕조교체가 엄청난 혼란의 시기로 묘사되는 것이 과연 진실이냐는

- 것이다. 사실 왕조가 잘 유지될 때도 혼란기가 아닐까? 어쩌면 당대의 유교적 순환론이 아직도 우리에게(좀게는 역사학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될 때 과연 일본측에서 정당화한 조선왕조의 부패론 등의 관점이 실제로 왕조멸망 후에 왕조적 순환론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고착된 인식으로 남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 8) 중국의 역사관이 과연 순환적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다. 민두기 편, 1985 《중국의 역사인식》 제 1부의 글 중 조셉 니담의 〈중국과 서구에서의 시간과 역사〉 참조
  - 9) 여기 대해서는 데이빗 베빙턴, 1997 《역사관의 유형들》 IVP pp. 50-52 참조
  - 10) 진보사상을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사상구조라고 갈파하면서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체계로 이해한 사람은 하우츠바르트이다. 그는 오늘날의 부분별한 성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진보사상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그의 책 1989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IVP 는 일독의 가치가 있다.
  - 11) 진보사상의 오용의 예 가운데 1970년대 캄보디아의 학살 즉 깨끗한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 하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처형시킨 것 등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 12)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을 분석한 책으로는 Stefan Tanaka 1993 《Japan's Ori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를 들 수 있다.
  - 13) 성경의 주장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되기도 했다. 이것이 서구의 탈 기독교적 방향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 14)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약점은 국가 내 혹은 사회내의 다양한 계급갈등이나 이해관계의 갈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 15) 이 점은 한국의 19-20세기 민족주의가 한국의 근대국가의 형성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과 맥락은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 심화의 중요한 시기는 1960-70년대로 추정하면 어떨까?
  - 16) 이 유형은 순환론적인 측면이 많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관의 유형을 담고 있다. 최근 시사문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효용이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립적인 역사관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 17) 대표적으로 유명한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A Study of History》(역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토인비 이전의 유명한 '문명'분석가들로 최근에 다시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의 다니엘레프스키(Danielevsky), 《서구의 몰락》을 저술한 슈팽글러, 러시아의 망명학자이자 하버드대학의 사회학과에 몸담았던 소로킨(Sorokin) 등을 들 수 있다. 토인비는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18) 그의 저술 중 《세계사》도 있다.
  - 19) 대표적인 예로서 토인비에 의해 기독교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연구되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것이 문명의 본질주의의 증거로 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0)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라브리 홈페이지에 올린 나의 글 〈동양-서양 이데올로기 비판과 새로운 역사인식〉을 참조. 이 글은 2차대전 전 일본의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다.